

루리 위키 > 가이드 · 고민 해결

홈 > 고민 해결

루리의 줍줍 · 응모·실무 가이드

입양 요건·절차: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정리

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



입양 요건·절차: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정리

루리

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고, 입양은 신고로 효력이 생겨요. 친양자 입양은 요건이 더 엄격하고 법원 청구로 진행돼요.

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고, 입양은 신고로 효력이 생겨요. 친양자 입양은 요건이 더 엄격하고 법원 청구로 진행돼요.

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조문 안내와 정부24 입양신고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. 개별 사건은 관할 가정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 예시는 설명용 **가상 예시**예요.

1 1. 입양의 큰 구분

구분	특징
일반 입양	양친과 양자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가 생겨요.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그대로 남아요.
친양자 입양	가정법원에 청구하고, 확정되면 종래의 친족관계가 종료돼요(민법 제908조의2 (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민법/제908조의2)).

2 2. 일반 입양의 요건

-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(민법 제867조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민법/제867조>)). 법원은 양육 상황, 입양 동기,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살펴봐요.

-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승낙하고,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해요(제869조).
- 미성년자 입양에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해요(제870조).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어요. 예외 사유의 세부는 **공식 확인**하세요.
-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입양해야 하고,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양자가 될 때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해요(제874조).
- 양자가 될 사람이 양친의 존속이거나 연장자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(제877조). 세부 범위는 **공식 확인**하세요.
- 성년자 입양의 요건(제866조 등)은 이 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어요.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**공식 확인**하세요.

3. 친양자 입양의 요건

민법 제908조의2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민법/제908조의2>)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.

요건	내용
혼인	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요. 1년 이상 혼인한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할 때는 예외예요.
양자	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해요.
친생부모	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해야 해요.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예요.
본인 승낙	13세 이상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승낙, 13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해요.

-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고, 이때 법원은 동의권자를 심문해요.
- 법원은 아이의 복리에 비춰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요.

4. 절차 흐름

- 미성년자 일반 입양이면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해요. 친양자는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요.
- 법원이 허가하거나 심판이 확정되면 그 서류를 갖춰요.

- 시·읍·면 가족관계등록 담당 부서에 입양신고를 해요.

5. 입양신고 안내

- 정부24 안내에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표기돼 있어요.
- 근거 법령은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61조와 제62조로 표기돼 있어요.
- 기본 서류로 당사자의 기본증명서·가족관계증명서·입양관계증명서가 안내되지만,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될 수 있어요.
- 입양동의서, 법원 허가서 등본 등 추가 서류 목록은 안내문마다 달라요. 제출 전에 관할 부서에 **공식 확인**하세요.
- 수수료, 증인 요건, 전자 신고 가능 여부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어요. **공식 확인**하세요.

6. 가상 예시

결혼 5년 차인 F씨 부부가 배우자 없이 지내던 미성년 아이를 친양자로 맞이하려 한다면, 부부가 공동으로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아이의 승낙 방식을 갖춰야 해요. 이 예시는 설명용이에요.

7. 알아 두면 좋은 점

- 허가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췄다고 항상 허가되는 것은 아니에요. 아이의 복리가 기준이에요.
- 일반 입양과 친양자는 친족관계 효과가 달라서 목적에 맞게 구분해야 해요.
- 입양 취소나 파양은 별도 절차예요. 정부24에 입양취소신고, 친양자파양신고 안내가 따로 있어요.
- 법 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.

8. 체크리스트

- 일반 입양인지 친양자인지 정했다
- 배우자 동의 또는 공동 입양 여부를 확인했다
- 친생부모·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했다
- 가정법원 허가 또는 심판 서류를 준비했다
- 신고 서류 목록을 관할 부서에 확인했다

9. 자주 묻는 질문

Q. 입양신고에 기한이 있나요?

A. 이 글에서는 확정하지 못했어요. 관할 부서에 **공식 확인**하세요.

Q. 친양자가 되면 친부모와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?

A. 확정되면 종래의 친족관계가 종료된다고 민법 제908조의2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민법/제908조의2>)
안내에 나와요.

10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

-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: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민법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민법>)
- 정부24 입양신고: <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CappBizCD=12700000047> (<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CappBizCD=12700000047>)
-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: <https://efamily.scourt.go.kr> (<https://efamily.scourt.go.kr>)
- 제866조 세부 요건, 신고 수수료·증인 요건: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



공유

공유하기

카카오톡



링크 복사

네이버 블로그

밴드

X

Facebook

다른 고민 보기 ·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

11 마감 임박 공모전

출처: 루리의 줍줍(sungprofile.cloud) ·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